

임용단기 합격 후기

경기 역사 김민재 선생님

과목명 | (교육학) | 스터디 여부 | (O) | 단권화 여부 | (X)

교육학 - 토대다지기와 내면화

1. 인터넷 강의 수강 - 토대다지기

교육학의 경우 4학년 초수 때 스터디를 통해서 기초를 다져둔 상황이었고, 전공이 부족한 상태여서 올해 재수를 할 때는 교육학의 비중을 줄이고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처음 교육학 공부를 할 때에는 인터넷 강의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기초부터 심화,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수강했고 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임용고시 교육학은 대략 19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교육학의 경우 전공보다 학습할 분량이 적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둔다면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수 때 다져둔 교육학의 토대를 잃지 않기 위해 재수 때 공부를 하면서도 인터넷 강의를 어느 정도 활용했습니다. 초수 시절만큼 커리큘럼을 따라 모두 들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반, 심화반(기본서를 읽는 강의들은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에 두 반을 모두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반을 수강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흔들리지 않을만한 토대를 잡고 나서는 이 내용들을 꾸준히 내면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면화 방식으로 저는 아래의 두 가지 공부 방법(짧은 글 쓰기, 누워서 공부하기)을 활용했습니다.

2. 짧은 글 쓰기 (스터디) - 내면화

교육학의 경우 단락마다 정확히 요구하는 개념이 있고, 그 개념과 관련된 세부 지식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단락 안에서 요구할 만한 사항들을 인출해보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짧은글쓰기를 활용해 내면화하고 자했는데요. 짧은글 쓰기는 스터디를 통해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글쓰기가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번거롭고(번거롭고 귀찮아야 공부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공부가 되는 학습방법은 귀찮음도 큰 것 같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지고, 스스로와 타협하며 지속성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수와 재수 시절 학교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며 2년간 꾸준히 짧은 글 쓰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고 무엇을 써야할지 어떤 내용이 들어 가야할지 막막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내용이 익숙해지고 구조화가 되어가니, 쓸 내용도 점차 늘어나고 분량도 어떻게 조절해야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학은 사실 시간과의 싸움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역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글 쓰기 역시 시기별로 주제가 달라져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한 스터디의 경우 초수 때에는 넓은 주제를 써보고자 했습니다. 예컨대, 스텐버그의 삼원지능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 덩어리들만을 쓰게 되고, 구조화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큰 덩어리들을 어느 정도 구조화하고 난 후에야 세부적인 내용으로 짧은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조화가 이루어진 뒤, 임용고시를 100일 정도 앞둔 무렵에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글을 써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삼원지능이론의 경험적 요소의 개념과 세부능력 세 가지를 제시하고, 삼원지능이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오. 라는 식으로 써보았습니다. 대략 2년간에 걸쳐 꾸준히 짧은 글을 쓰면서 얇은 공책이지만 네 권정도 사용했고,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누워서 공부법 - 내면화

사실 이건 활용가능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개인차가 클 부분이어서 무시하실 분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누워서 공부는 사실 전공에서도 활용했는데요. 누워서 공부한다는 게 생소할 수도 있고,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누워서 자기 직전의 시간동안 요약된 자료를 계속 읽고 외우려고 중얼중얼 거리며 잠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공부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노트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필기로 책에 공부를 해도, 그것을 노트북으로 타이핑하면서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후반부에는 애초에 필기자체를 노트북으로 하고 그걸 재정리하고 요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트북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한글이든 워드든 결과물로서 요약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파일을 활용해서 핸드폰으로 누워서 계속 보는 겁니다. 약간 사이비 같아보일 수 있지만 저는 수면의 힘을 광신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무엇인가 공부하던 걸 쪽 보고 잠들었다 일어나면 머릿속에서 내용이 구조화되거나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창시절 이와 관련한 뇌 과학 연구결과를 어디서 들어본것도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양치하면서 어제 중얼거린 내용들이 생각이 나기도 했었구요. 저는 이 셋째, 누워서 공부법을 활용해서 내면화를 하고자했습니다. 교육학의 경우 서브노트를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서 여백 좁은 A4로 약 30쪽 정도 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교육학 16.33점)

전공역사 - 프리패스를 활용한 다양한 공부방식의 활용

1. 인터넷 강의 수강 - 토대다지기와 경중 輕重 구분하기

마찬가지로 전공 역시 토대다지기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뜻이라도 한번 보았던 내용이라면, 시험에서 문제로 맞닥뜨렸을 때 죽어라 고민하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실제로 저의 경우 올해 1차 문제에서 죽어라 고민해서 맞춘 문제가 여럿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양한 전공역사 지식을 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시험이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출제 되는 경향이 있어 어떻게든 넓은 토대를 만들어 놓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종권 선생님의 전공역사 프리패스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권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서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종권 선생님의 “축”이 담겨있는 세부적인 지식들을 접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세부적이고 넓디 넓은 지식을 듣다보면 “에이 이게 설마 나오겠어” 싶다가도 은근히 신경 쓰여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남고 외워집니다. 이런 작고 세세한 것 지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맞추기 어려운 세세한 문제도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경우 김종권 선생님 인강을 기본반, 심화반, 문제풀이, 모의고사반 등 기출변형 강의를 제외한 모든 커리큘럼을 다 활용했습니다.

또 김종권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며 또 좋았던 점은 정말 합격을 위한 빠른,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아주시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역사 선생님이 될 예비교사로서 중요한 흐름들이나 지식들을 모두 다 꼭꼭 씹어 먹을 정도로 알고 있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합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종권 선생님은 이런 측면에서 최근 몇 개년 내 기출 주제와 관련한 사항은 최대한 기출이 안나왔던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기출된 부분은 소략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토대를 다지면서도 합격을 위한 경중 輕重을 가릴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중 구분으로 강의를 듣고 노트북으로 필기하면서 별표로 공부할 내용의 우선순위를 달았던 것 같습니다.

2. 스터디 활용 방법 : 개설서 읽기 의무 부여 및 빈칸 채우기 - 내면화하며 읽기, 인출하기

1차 전공 스터디의 경우 올해 처음 해보았습니다. 작년 교육학 스터디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 동일한 스터디원들과 함께 전공 역시 같이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스터디에서 개설서 읽기 의무를 부여하고, 읽기로 한 범위만큼 빈칸을 채우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초수 때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둔 개설서 빈칸 채우기 자료가 따로 있었기에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빈칸 채우기를 위해 개설서를 타이핑 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종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그린노트라고해서 별도로 빈칸이 뚫려진 학습 자료가 제공되었는데, 이것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학도 그렇지만 결국엔 전공도 인출싸움인 것 같습니다.

스터디원들과 협의하여 최종 목표와 기한(예컨대 3월까지 한통, 동개, 서개 읽기)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1주에 몇 쪽씩을 읽어야하는지를 계산해서 칼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위가 과중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만, 결국에 개설서를 발췌해 했던 작년 수준을 넘어, 온전히 1회독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공역사의 경우 당연히 누가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역사 사실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낼지 알 수 없기에, 개설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꼭 씹어 먹으며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읽어냈던 것 같기에 다른 분들은 꼭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개설서 회독 수는 정말 적었거든요. 2년간 3회독이 될랑 말랑.. 그럼에도 합격한 것은 어쨌든 올해 스터디원들과 함께 1회독을 꼭꼭 씹어 먹도록 읽은 경험 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주간 천천히 읽은 분량에 대해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빈칸을 채움으로써 인출 연습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 누워서 공부법 - 내면화

전공 역시 노트북으로 공부를 했기에 부산물로 항상 요약자료, 정리자료 같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항상 핸드폰으로 전송해서 누워서 보면서 잠들었어요. 교육학에서 이 방법은 설명했기에 구체적인 방법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경우 누워서 공부하는 것도 웬만하면 요일을 정해서 과목별로 보고자했습니다. 내키는대로 전공과목을 골라보면 편식을 하게 되고 결국 문제가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화수목금으로 요일을 설정하고, 각 요일에 따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기타사, 역교론 이렇게 다섯 과목을 보았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자유롭게 보고 싶은걸 보거나, 쉬고싶을때는 안보며 자기도 했습니다.

4. 문제풀이와 서브노트 정리 - 내면화

저의 경우 8월 초부터 어머니도 아프시고, 집안 사정도 이래저래 생겨서 약 2달여 간 공부를 못했습니다. 상반기까지 만들려고 노력했던 토대들도 내면화도, 인출연습도 다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막막했고

내용도 하나도 모르겠어서 올해도 포기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거 이야기해서 뭐하나 싶지만 저한테는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남들은 깨달음을 얻어간다는 8-9월에 다시 모든 걸 잃고 제로베이스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야겠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집에 이런저런 사정이 생기니까 철이 들게 된건지 정말 이겨내고 붙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굳게 먹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슬럼프가 오시게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때 정말 무너질 뻔 했지만, 이 악물고 일어나려고 했고 버티면서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할까 생각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지나간 커리큘럼은 포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종권 선생님의 문제풀이~모의고사 커리큘럼을 따라가자고 결정했습니다.

문제풀이 초창기에는 문제를 보고선 정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빈칸으로 조금 인출 해보았다 한들 1-2개월 공부를 손에서 떼니까 정말 토대고 뭐고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모의고사반을 수강하면서 사실상 공부를 새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지금은 다 틀려도된다. 근데 오늘 배운 거를 또 틀리지는 말자. 오늘 푼 내용들만 꼭꼭 씹어 먹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풀어진 문제 관련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사실상 문제풀이·모의고사 강의를 토대로 서브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년도 합격한 것의 8할은 문제풀이, 모의고사반 강의와 그 내용 정리 덕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정리는 출제범위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앞뒤의 개설서 내용들, 김종권 선생님 추가로 제공해주시는 강의내용들을 한글파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모의고사반은 시험 전 주까지 있었으니, 제가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도 시험 전주까지 쪽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틈나는대로 그 만들어진 문풀·모의고사 서브노트를 누워서 보고, 일어나서 보고, 개별공부시간에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워서 공부법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김종권 선생님의 문풀·모의고사반 강의들으며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한 서브노트만 해도 사실상 여백 좁은 A4 기준 한국사 80p, 역교론 52p, 동양사 47p, 기타사 15p가 나왔기에, 그냥 문풀을 통해서 거의 모든 범위 공부를 다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만들어진 서브를 시험 직전까지 반복해서 읽고자 노력했고, 1.5회독 정도 하다가 시험장에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두달의 시간을 날린 만큼 빼어나게 1차를 잘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차는 붙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전공 48. 67)

- 후배 예비선생님들을 위한 학습팁

1. 슬럼프 극복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 경우 슬럼프라고 할만한 시기는 문제풀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합격수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달 공부에 손을 못대긴 했지만 “정말 이렇게 문제를 1도 못풀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스터디원들의 모습을 살펴봐도 이때가 참 힘든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힘내려고 했던 말을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두달간 공부를 못하고 문제풀이를 하며 열심히 자존감이 낮아지려고 할 때, 제 남은 2달간의 마음가짐은 “오늘은 다 틀려도 된다. 시험에 나왔을 때만 절대 틀리지 말자. 오늘 틀릴 수 있어 다행이다. 배울 게 많이남고, 올라갈 점수가 있어 정말 기쁘다!” 라는 마음.. 억지로..라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수강을하시면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 일희일비하지마시고 그냥 저처럼 마음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반년넘게 토대다지고도 모의고사, 문풀 망하면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치만 꼭 생각하세요. 꾸준함이 이기고 틀리지 않았으니깐 아무생각없이 그냥 주욱 하시기를!!

2. 운동의 소중함

워낙 강조하는 말이라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왜 운동해야하는지 이유는 정말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체력! 운동은 꼭하세요! 저는 헬스장을 이용했습니다. (막판에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시간없이 쪼들려서 공부를 못했지만 초창기에는 꾸준히 갔어요) 바깥 산책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저는 산책 할 데가 마땅치 않았고, 후반부에는 노트북공부에 전념하느라 독서실도 안가고 집에 박혀있었거든요. 그래서 헬스를 갔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공부를 한 사이클 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을 안하면 오전-점심-오후-저녁하고 보통 쉬거나해서 하루가 끝날 수 있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저녁 이후에 운동을 하면 리프레시가 돼서 저녁이후에 운동-공부-휴식 이렇게 한 타임 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공부방법은 사람 by 사람

지난 16년(초중고-대학)의 교육 경험을 통해서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식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잃지 마시고, 밀어 붙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효율이 좋은 방법을 활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이 노트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서브로 만들어서 핸드폰을 통해 수시로 복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손 필기가 편하신 분은 손필기로 복습을, 누구에게 설명하듯이 공부하는 것이 효율이 좋은분들은 그방법을, 백지인출을 하시는분은 그방법을! 그 외 다양한 공부방법이 있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 꼭 찾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손으로 공부하는게 효율이 별로 안좋은 편인데, 괜히 임용고사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직접 책에 쓰며 공부했다가 효율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꼭 찾으세요!

● 작성해주신 합격수기는 2019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선생님들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